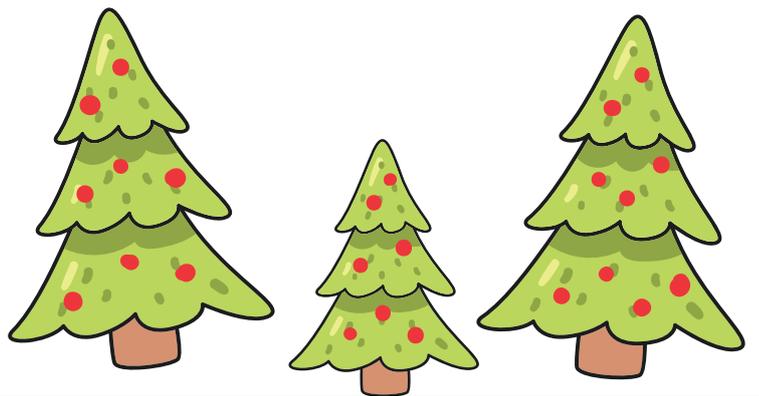


12월 인의협 뉴스레터

소리통



C O N T E N T S

인 의 협 ' s O p i n i o n

인 의 협 활 동 보 고

↳ 서 경 지 회

↳ 대 전 충 남 지 회

↳ 대 구 경 북 지 회

↳ 부 산 경 남 지 회

G P 가 말 하 는 『 생 명 의 증 언 』

C O M I N G S O O N

보고싶은 내용을 선택하시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의협's Opinion

[인의협][논평] '취약계층 진료 지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정규 의료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은 현재 천주교와 수많은 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진료소, 무료 진료소 등으로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질 그리고 항구적인 지속성 문제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진료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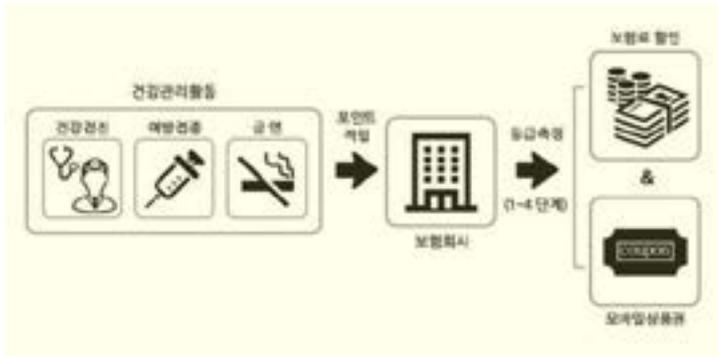
[인의협][성명] 사드는 한반도의 방패가 아니라 전쟁의 도화선이다.



지난 9월 7일,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의 사드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장비 철수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의협][보건연]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금융위원회가 예시로 제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문재인 정부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폐기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

[인의협][성명] 신찬수 교수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의료계에 크나큰 수치를 남긴 서울대병원에서 관련자인 신찬수교수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의협 활동보고

진료소 활동

9

- 9월 진행날짜 : 9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동대문)
9월 3일(서남권 글로벌센터)
- 참여 선생님 : 한동엽, 고준영, 이다인, 윤지희, 장연식(동대문)
정형준(서남권 글로벌센터)
- 9월 환자 수 : 44명 (동대문)

- 10월 진행날짜 : 10월 13일, 20일, 27일(동대문)
- 참여 선생님 : 장연식, 윤주영, 전승엽(동대문)
- 10월 환자 수 : 28명 (동대문)

10

11

- 11월 진행날짜 : 11월 3일, 10일, 17일, 24일(동대문)
11월 5일(서남권 글로벌센터)
- 참여 선생님 : 고준영, 송형준, 이석영, 장연식(동대문)
박혜경, 정형준(서남권 글로벌센터)
- 11월 환자 수 : 15명 (동대문)



〈동대문진료소〉

〈서남권 글로벌센터〉

9월 열린월레포럼



9월 5일, 의료계의 핫한 이슈인 "문재인케어"와 관련하여 발제 및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인 의협회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 선생님의 발제 후,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월레포럼 참여자 : (가나다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경아, 김민선, 김봉구, 김 윤, 김정범, 김철주, 백 남순, 유기훈, 유형섭, 이미라, 이보라, 이승홍, 전진한, 정형준, 조규석, 홍종원(인의협) / 김상기, 김서영, 박미정, 박찬호, 오건희, 우승호, 유의현, 이보령, 이선재, 정명관, 조용원, 채진병, 최우식, 하정은 총 33명

9월 20일 / 9월 국제 보건세미나



Global Health Wath4를 함께 공부합니다. 9월 국제 보건 세미나에서는 E6 :Struggles for health in Europe / E7 : The struggle against a destructive mining project in Greece / E9 : Aborignal community-controlled health services in Australia를 예방의학과 김새롬 선생님이 발제했습니다.

[9월 국제 보건 세미나 참여자 : (가나다순/ 존칭생략) 강아름, 김새롬, 백재중, 이미옥, 임성미 총5명]

전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사업이 7월 3일 예비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의협에서는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거주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에 흔쾌히 응해주신 인의협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 10월 조사 참여자 : (가나다순 / 존칭생략) 김동은, 김선주, 김신애, 김종목, 노동현, 문 강, 최원호 총 7명]

10월 월례포럼



10월 월례포럼은 이유진 녹색당 탈핵위원회 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와 탈핵"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월례포럼 참여자 : (가나다순/ 존칭생략) 강아름, 김미정, 김봉구, 김신애, 김철주, 백남순, 우석균, 이미옥, 이보라, 이승홍, 정형준 / 안미경, 엄주현, 이준수 총 14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세상과 함께하는 의사들의 사랑을 해, 2017



인의협 창립 30주년

2017. 11. 18. (토) 오후 7시
서울 여성프라자 1층 국제회의장
문의 | 02)766-6024, 6027
홈페이지 | www.humanmed.org

프로그램 | 기념식 (1부)

- 축하공연
- 감사인사
- 인의협 30주년 특별선언문 낭독
- 북콘서트 (2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사진을 클릭하면 30주년 기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18일(토)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참석자(가나다순/존칭생략) : 강아름, 강종문, 고경심, 고은산, 광이경, 김건우, 김경아,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은,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 김봉구, 김선주, 김성록, 김성아, 김신애, 김용진, 김재식, 김정범, 김종명, 김종목, 김주연, 김준현, 김지영, 김해룡, 김현숙, 남인순, 노태맹, 박경남, 박석운, 박세현, 박찬호, 배기태, 배다혜, 배지혜, 백남순, 백재중, 백한주, 변혜진, 서흥관, 성장기, 송윤혁, 신현정, 안은선, 양길승, 염석호, 오주환, 우석균, 유기훈, 유형섭, 이경중, 이관택, 이미옥, 이보라, 이상윤, 이서영, 이승홍, 이종우, 이현석, 임정균, 임종한, 장영우, 전형준, 정문용,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형준, 조혜영, 조흥준, 주영수, 최규진, 최윤정, 최종진, 추호식, 한상훤, 한애라, 홍경표, 홍영진, 홍창의, 황자혜, Edalina p. Dela Paz, Jean hardiman Smith, Michael Edwardson, 内田, 文雄長瀬, 岸本啓介 총91명]



기념식은 대경인의협 사무국장 추호식 선생님의 멋진 국악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북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사무국장 이보라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30주년 준비위원장 염석호 선생님의 환영인사로 시작해, 인의협 30년 역사에서 공로를 기여하신 선생님들께 공로패 증정의 시간과 인의협 대표 김정범 선생님의 발언, 그리고 각 지역대표님들의 인의협 30주년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1부 기념식은 인의협의 미래, 인의협 학생회원들과 함께 인의협가를 제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로상 수상자 : 홍창의, 윤종구, 심재식, 고한석(중앙서경), 이문희, 신현정(대전충남), 김병준, 김진국(대구경북), 이귀숙(부산경남), 홍경표(광주)

특별공로상 수상자 : 故배기영, 故한일권

** 존칭생략, 가나다순 / 서울의 경우 역대이사장 역임순서



2부 북콘트는 기획국장 김철주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기념책자 『광장에 선 의사들』의 저자 최규진선생님의 인삿말로 시작했습니다.

시대별 주요활동을 이끌었던 선생님들께서 직접 내용을 낭독하시어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의협의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는 역사들의 시운 박, 2017

인의협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불평등의 시대, 건강불평등과 의사의 역할

1부
각 국가별 발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한국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 | 일본
Hukasi Yanagisawa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 부회장)

People's Health Movement |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Pacific
Edelina P. Dela Paz (필리핀 마닐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ocialist Health Association | 영국
Brian Fisher (SHA 부회장) & Jean Hardiman Smith (SHA 사무총장)

2부
초청강연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ichael Marmot (런던대 교수, 前 세계의사협회장)



- 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 오후 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인의협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주영수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님과 일본 야나기사와 전일본민의원 부회장, P.H.M(- People Health Movement)에서 활동중이신 에델리나 필리핀 마닐라 의과대학 교수님, 영국 S.H.A(Social Health Association)부회장이신 브라이언 피셔 선생님 이렇게 4분이 각 국에서의 보건의료운동과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 단체에서의 노력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에서는 <Health Gap>이란 저서로 유명한 전 세계의사협회장이신 마이클 마뫼트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로 인한 복지축소와, 긴축재정, 민영화의 바람이 보건의료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깨달았던 시간이 되었고 평일 저녁에 진행된 학술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함께한 학술대회였습니다.

대경인의협 김선주팀장님의 소감입니다^^





그 외 초청외국연자 일정



11월 19일 / 경복궁 답사 및 보건연과의 저녁식사 간담회

참가자 : 김민지, 김주연, 백남순, 우석균, 이보라, 주영수, 최경만, Edelina P. Dela Paz, Michael Edwardson, Jean Hardiman Smith
총 10명 외 최경만선생님의 따님, 보건연집행부



11월 20일 / 모란공원 답사

참가자 : 강아름, 고은산, 박건희, 이보라, 정충만, 주영수,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Michael Edwardson, Jean Hardiman Smith 총 10명



11월 20일 / 녹색병원 방문

참가자 : 강아름, 고은산, 김봉구, 박건희, 이보라, 정충만, 주영수,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Michael Edwardson, Jean Hardiman Smith 총 11명 외 녹색병원 관계자



11월 20일 / 기자간담회 "건강 불평등 시대, 의사의 역할을 말하다"

참가자 : 강아름, 고은산, 김신애, 우석균, 이미옥, 이보라, 정충만, 주영수, 황자혜,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Michael Edwardson, Jean Hardiman Smith, 内田, 文雄長瀬, 岸本啓介 총 16명 외 기자



11월 20일 / 인의협 중집위와 저녁식사 간담회

참가자 : 강아름, 고은산, 김민지, 김신애, 신태은, 이미옥, 이보라, 우석균, 정충만, 황자혜,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内田, 文雄長瀬, 岸本啓介 총 15명



11월 21일 /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간담회

참가자 : 고은산, 나백주, 박건희, 이미옥, 이보라, 이현석, 한애라, 황자혜,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内田, 文雄長瀬, 岸本啓介 총 13명 외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



11월 21일 / 은평구보건소 방문

참가자 : 박건희, 이보라, 이현석, 정충만, 최경만, 황자혜,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内田, 文雄長瀬, 岸本啓介 총 11명 외 은평구보건소 관계자



11월 21일 / 서북병원 방문

참가자 : 박건희, 이보라, 이현석, 정충만, 최경만, 황자혜, Brian Fisher, Edelina P. Dela Paz, 内田, 文雄長瀬, 岸本啓介 총 11명 외 서북병원 관계자



11월 24-25일 / 속초여행(Brian Fisher)

참가자 : 강아름, 고은산, 이미옥, 정충만, 황정은, Brian Fisher 총 6명

대구 · 경북 인의협

9월 17일 / 전문직단체협의회 "제1회 전단협 인권투어 at.경산코발트광산"



-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9:30
- 장소 : 경산코발트 광산

대경인의협, 건약, 건치, 민교협, 민변, 대구 사회연구소가 소속된 전문직단체협의회에서 첫 번째 인권투어 프로그램으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을 다녀왔습니다.

9월 18일 / 권영진 대구시장 3주년 보건의료분야 평가 토론회



- 일시 :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19:00
- 장소 : 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

대경인의협이 소속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권영진 현 대구시장의 집권 이래로 매년 보건복지분야 평가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눠 좀 더 깊이있게 공약평가 토론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분들, 기자 등 45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3년 동안의 공약이행 상황 및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1/8(수) 19:00, 대구YMCA 100주년 백심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3년 평가 토론회 2탄으로 "사회복지분야"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9월 23일 / 인의협 겨울 의대생캠프 준비회의



-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14:00, 류커피
-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16:00, 부산역 앞 엔제리너스커피(2차례 진행)

지난 여름 진행된 '의대생 피스로드캠프'를 이어 이번 겨울 방학때 진행될 의대생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대경인의협과 부경인의협이 만났습니다. 첫 회의는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부산에서 준비해오신 의대생캠프 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차기 회의는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2일 / 김신애 선생님 환송회



- 2017년 10월 12일 20시부터 / 장소 : 은행나무

그동안 대경인의협에서 활발히 활동해오신 김신애 선생님께서 서울 녹색병원으로 가시게 되어 시간되시는 대경인의협 회원들이 모여 환송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신애 선생님의 서울에서의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11월 2일 / 2017년 제5차 대경인의협 포럼



- 일시 : 2017년 11월 2일 수요일 19:30 / 장소 : 대경인의협 사무실

〈의료와 인권 - 인권친화적인 병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경인의협 포럼은 박대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조사관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박대현 선생님은 전 대경인의협 상근자이기도 합니다. 의료인은 어떻게 양성되는지,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권 친화적인 병원이 아닌 인권 친화적인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진료실에서의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지 등글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생각거리도 많이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4일 / 로힝야 인권실태 보고회



- 일시 : 2017년 11월 14일 (화) 19:00
- 장소 : 지식과세상 강의실

대경인의협이 속한 전문직단체협의회와 생명평아시아 등의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아디”에서 활동중이신 김기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로힝야 인권실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9-20일 / 전일본민의원 & 대경인의협 교류회



- 일시 : 2017년 11월 19일 -20일 / 장소 : 성주소성리, 대구 종로 일대 등

인의협 30주년 기념식과 국제학술대회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오신 전일본민의원 분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대경인의협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현장 방문과 대경인의협 회원들과의 저녁 교류회, 다음날 대구근대골목 투어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일본민의원분들과 더욱 돈독한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22-23일 / 국제학술대회 발표 연자들을 위한 안동, 경주투어



- 일시 : 2017년 11월 22일 - 23일

- 장소 : 안동 하회마을·병산서원, 경주 불국사·첨성대, 대구 약령시

에델리나 델라파즈(P.H.M, 필리핀 마닐라 의과대학 교수), 브라이언 피셔(S.H.A 부회장)과 학술대회 다음날 1박2일 일정으로 인의협 선생님들과 함께 안동과 경주를 방문 했습니다.

주영수 교수님과 고은산 학생 그리고 김성아 대경인의협 학술국장님께서 이 일정을 함께 하셨는데 요, 제법 쌀쌀한 날씨였으나 도심에서 벗어나 한국의 미를 자랑하는 두 곳에서 멀리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잘 보내고 오셨다고 합니다 ^^

(토요일 30주년 기념식에서 부터 다음날 전일본민의원과의 교류회와 근대골목투어, 화요일 학술대회 참가와 안동&경주 투어까지 그야말로 4박5일여간 강행군을 진행하신 김성아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부산 · 경남 인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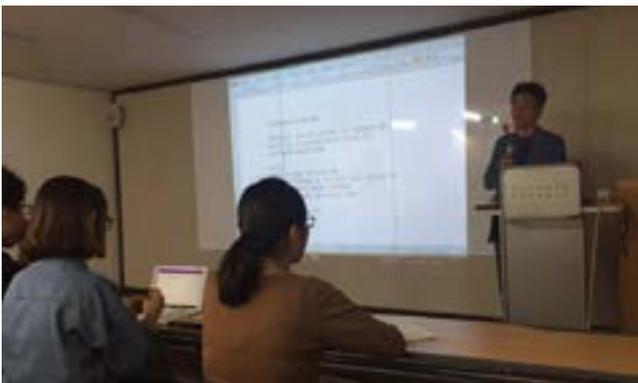
9월 13일 / 기획강좌 '고조되는 전쟁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9월13일 '고조되는 전쟁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강좌를 '겨레하나 통일포럼'과 함께 했습니다. 강사는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원이었습니다.

[참여자 (가나다순/존칭생략) : 김종목, 김환수, 박지현, 사공필용, 이미라, 정문용, 정운용 총 7명]

9월 15일 / 의대생 '팀 라포트' - '노숙인의 잠 못드는 밤' 사전 OT



고신의대 7명, 인제의대 4명, 동아의대 2명 참석했습니다.

정운용 선생님이 인의협의 노숙인 진료사업 역사를 발표했고, 김종목 선생님이 부산 지역 주거취약계층 현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앞으로 활동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9월 29일 / 진료소 간담회



9월29일 의대생 '팀 라포트' 행사로 '노숙인 진료소' 방문 및 진료소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신의대 7명, 동아의대 2명, 인제의대 1명 참석했습니다.

10월 25일 / 부경인의협 모임

정운용, 김종목, 사공필용, 노동현, 박지현, 김호영 선생님 참석했습니다. 인의협 30주년 행사때 부경인의협에서 감사패 받을 선생님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10월 28일 / 의대생 '라포트' 프로젝트 - '노숙인의 잠 못드는 밤' 중간평가



고신의대 5명, 인제의대 2명, 동아의대 2명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노숙인 심야 아웃리치 참가, 쪽방 방문, 진료소 방문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숙인팀'과 '이주노동자팀'으로 나누어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1월 4일 / 부경-대경인의협 공동 '의대생캠프' 준비모임



부경에서 김종목, 임정균 선생님, 고신의대 2명 참석했고, 대경에서 김동은 선생님과 사무팀장, 그리고 계명의대 1명 참석했습니다.

11월 22일 / '동남권 원자력병원 의사노조'와 간담회

의사노조 선생님 3명, 부경인의협 5명, 그리고 우석균선생님 참석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병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7일 / 의대생 '라포트' 전체모임



고신의대 4명, 인제의대 2명 참석했습니다.

노숙인팀은 '노숙인 영화의 밤' 행사 준비 중이고, 이주민팀은 '이주노동자 진료소'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GP가 말하는 생명의 증언



GP 3명이 모였다. GP는 general practitioner의 약자로 ‘일반의’라는 뜻이다. 의사면허증은 있지만 전문의는 아닌 의사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병원문화는 전문의 중심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라면 당연히 ‘무슨 과’ 의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슨 과’가 없는 의사도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반의가 된 젊은 의사 3명이 모여 [생명의 증언]을 읽고 이야기했다.

GP 소개



GP1 SAY:

저는 졸업하고 작년에 모교병원에서 인턴을 했어요. 하고 싶은 과에 지망을 했지만 떨어져서 올해 1년 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합니다.



GP2 SAY:

저는 올해 졸업하고 인턴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근무가 힘들어서 3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잠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피부미용전문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GP3 SAY:

저는 올해 졸업했고 과감하게 일단 올해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여유없이 살았던 것 같아서요. 저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턴 지원을 안 했고 인천의 한 요양병원 당직의로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의 인턴생활에 대해 단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고 있지요.

시작하며



GP2 SAY:

한 달 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함께 읽은 책은 『생명의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요시나카 다케시라는 일본의 심장내과 의사가 ‘만성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들을 만나 평생에 걸쳐 이들과 함께 직업병 인정을 받기 위해 싸워온 과정을 담은 책이었죠. 사실 처음에 이황화탄소가 뭐더라 잠깐 생각했어요. 원래는 화산에서나 나오던 이황화탄소가 도시에서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새로운 병을 만들어낸 것이더라고요.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킨 면도 있지만 이렇게 없던 병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먼저 발생하는 것 같고 그것이 직업상의 노출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GP1 SAY:

저도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한 기존 지식이나 치료 경험이 전혀 없지만 이 책을 읽고 이황화탄소가 인체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진단을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와 혈관, 눈과 호흡기 등 몸의 여러 기관의 전문적인 의학용어가 많아서 비의료인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GP3 SAY:

저는 한 신기한 의사 선생님의 자전적 에세이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심장내과랑 ‘만성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거의 관련이 없잖아요. 게다가 보통 심장내과의사 선생님의 이미지는 근엄하고 냉철한 이미지가 강하고 따뜻한 마음씨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직업병 환자와 가족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의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민의련이란 이름하에 뜻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전문가의 영향에 대해서



GP2 SAY:

책에 보면 당시 일본에서 만성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직업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뇌혈관 장애와 ② 이황화탄소성 망막증 소견이 필수적이었는데, 지역 의사회 회장도 하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들의 머리 CT로 뇌혈류순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후배 안과 의사들은 무료로 형광안저검사를 해서 이황화탄소성 망막증을 입증해줘서 이것을 근거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의 의사들은 이렇게 나서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P3 SAY:

정말 멋진 개개인의 전문가들이 잘 협업하여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건 선한 의지를 가진 개개인이 발벗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으로 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후배 안과 의사들이 무료로 형광안저검사를 해줘서’ 인정받기보단, 이황화탄소 노출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몇 년에 한 번은 검사를 제공한다는 식으로요.



GP1 SAY:

하지만 책에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나와요. 1947년에 어떤 레이온 공장에서 정신과 환자가 많이 발생하자 이황화탄소가 원인이라고 의심하는 의사들이 이황화탄소를 직접 환자에게 주사하는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기업과 산업의 단체가 유착하여 산재를 은폐하고 일부러 방독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일하게 해서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등의 실험을 했다는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피해자들의 뇌졸중은 유전적인 질병이고 망막의 모세혈관류가 없으므로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한 유니치카 병원장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수출되는 직업병



GP2 SAY:

이런 직업병을 양산하는 레이온 기계가 1964년 한국에 들어옵니다. 친일파 거부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한일국교정상화 이전부터 도레레이온과 접촉하여 한일기본협정이 이뤄지자 바로 이 오래된 기계를 36억엔이라는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고 해요. 한일협정은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원조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돈부터 받아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위안부문제나 군함도에 끌려간 사람들 이야기 하면 그 때 다 보상했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분노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직업병을 만드는 중고레이온기계를 사면서 36억엔이 배상금에서 지불되어서 결국은 친일파 박흥식, 일본 도레레이온이 모두 이익을 보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직업병기계로 일을 하게 됩니다.

GP1 SAY:

네, 일본에서 직업병 환자를 발생시킨 설비가 산재판정 후 가동중지되고, 한국으로 팔려갔고 한국에서도 그 기계를 사용하던 작업장에서 똑같은 직업병이 문제가 발생한거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게, 힘들게 싸워서 결국 한국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기계는 중국에 가 있다고 나오네요. 한번 직업병을 유발하는 설비라고 인정되면 폐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직업병 발생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P3 SAY:

책에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들이 산재 투쟁을 하면서 나중엔 다같이 컨퍼런스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지역의 레이온 공장에서 일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조금 몽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컨퍼런스가 한·중·일 컨퍼런스로 발전하고 이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책에서 EU가 납사용을 금지해서 납을 사용하지 않는 납땜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황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레이온 공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기술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 공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GP1 SAY:

저는 GP로 출장 건강검진(직장 건강검진)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사무실, 지방에 있는 마트, 경기도와 강원도 부근의 작은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제 머리 속의 공장은 삭막하지만 깨끗하고, 잘 관리된 컨베이어 벨트가 막힘없이 돌아가는 공간으로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출장검진을 다녀보니, 가설 건물에 열악한 냉난방, 기계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분진, 환기도 잘 안되고, 오래되고 낡은 설비 등,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 너무 다른 현장을 많이 보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유해물질규정, 작업 환경 같은 부분에서 최근의 그 경험들을 연결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P3 SAY:

저는 얼마 전에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했는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말씀하시길, 삼성에서 황유미씨 앞으로 암보험을 들어냈다고 하더라구요. 유전적 소인이 있지 않고서야 암 발병률이 극히 드문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암보험을 들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삼성이 반도체 공정이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공유정옥 선생님은 미국에서 이미 1991년에 반도체 공정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비교했을 때 자연유산율이 2.7배 높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며 삼성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나 은폐하려 했다고 하셨어요. 반도체 공정에서 각각의 유해물질의 노출치는 기준치의 5% -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유해물질이 워낙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적효과,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황화탄소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거대한 기업과 싸워야 하고 의학적인 증명까지 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메탄올 실명문제도 그렇구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산재문제도 비슷한 궂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중 산재사망률 1위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윤을 위해서면 뭐든 허락되는 작금의 풍조 자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찌 해야 할지, 아직은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GP2 SAY:

책에 ‘병에 걸린 사람인데 환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병에 걸려도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거죠. 저자는 만성이황화탄소 중독증에는 4개의 틈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예방을 안 한 것, 둘째 진단을 빨리 못하는 것, 셋째, 산재라는 판단을 빨리 못하는 것, 넷째 적절한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 우리나라도 이러한 틈새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큰 틈새들이 있죠. 예방-진단-산재인정-치료, 이렇게 중요한 단계들에 커다란 틈이 존재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개인은 자신이 어떤 단계의 틈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둔감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몸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내재화된 기준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사회의 안전망이란 그런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P1,2,3 SAY:

짹 짹

Coming Soon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광고입니다^^

의대생, 인권을 마주하다

한센병, 세월호, 그리고 민주화운동



인양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눈물

우리가 몰랐던
강의실에서 외면 받았던
한센병 이야기



30년의 시간
잊혀지지 않는 슬픔
5·18 민주화운동



일시: 2018. 01. 19 ~ 01. 21

기획단 신청: ~2017. 11. 30

참가비: 3만원

참가 대상:

전국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문의: 010-6641-9263

humanrightsmedicine@gmail.com

방문 장소: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병 박물관

목포 신항만 세월호 거치장소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